



試行錯誤

Mistakes Routed Us to IMF

우리의 급속한 경제성장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저지른 각종 시행착오에 대하여 반성하고 재발 방지에 노력을 한다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힘이 될 수도 있다.



元 濟 熾
Won, Je Hyuk

며칠 전 나는 사소한 문구(文具)를 구하려고 시장에 직접 나가 찾아보았다. 내가 경영하는 회사에서 지금까지 개발하고 생산해오던 통신기용 기본부품류를 카탈로그로 정리하여 해외시장은 물론 국내시장에도 소개하기 위해서였다.

지금까지는 카탈로그의 내용을 정리하여 몇 백부씩 인쇄해놓고 보면 오자(誤字)도 나올 수 있고 인쇄가 된 후 제품의 사양이 변경되면 인쇄내용도 변경해야 하는데 이미 잔뜩 돈을 들여서 인쇄한 것을 버리기가 아까우니까 변경될 부분을 또 인쇄하여 오려서 풀로 붙이곤 했는데 얼마나 조잡한가. 외국에서 오는 카탈로그를 보면 이런 사례를 본적이 없고 또, 상당히 미려하여 인쇄물만 보아도 품질을 믿을 수 있을 정도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 가지 융통성을 갖기 위한 방안이 소위 DTP(DESK TOP PUBLISHING)기법이 아닌가 싶은데 요즘은 개인용 컴퓨터도 충분히 보급되었고 해당 PROGRAM도 다양하고 인쇄기도 위조지폐를

만들 정도로 발전되어 있어 보통의 회사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시대가 왔다.

그래서 나도 회사에 있는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인쇄를 하여 보니 외국에서 DTP기법으로 만든 카탈로그와 별 손색이 없었다. 그러나 문제는 제본(製本)하는 것이었다. 국내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은 반투명한 비닐커버를 앞뒤로 두르고 플라스틱 압출물을 끼워 넣는 방식과 사출물 스프링바인더를 사용하는 방식이 주류인데 내가 외국으로부터 받아본 것과 비교하여보니 두 가지다 신통치 않아 좀 색다른 방법을 찾아보려고 직원을 시켰으나 꽤 시간이 걸려서도 구해오지 못하여 이날은 내가 직접 찾아보려고 시장에 나가 본 것이다. 우선 국내의 인쇄물의 본부라 할 수 있는 충무로를 뒤져보았고 방산 시장도 뒤져보았으나 내가 찾고있는 제품은 아는 사람도 없고 파는데도 없었다.

몇 시간을 돌아다니다가 광화문에 있는 K 문고에 가면 책도 많고 취급하는 문구도 다양하여

*전자응용기술사, 모아통신(주) 사장.

뒤져본 결과 마음에 드는 제품을 구할 수 있었다. 우선 반가운 마음에 적당량을 구입하여 회사에 와서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이것은 MADE IN USA였다. 이것을 보고 나는 놀라운 한편 매우 착잡한 생각에 빠져들었다. 우리 나라에서도 몇 해전부터 정기적으로 DTP에 대한 전시회도 개최되었던 것을 기억하는데 왜 이와 같이 가장 기초적인 제품이 없을까? 과거에 전시회에 갔을 때를 기억해보면 외국의 유명한 기계들을 경쟁적으로 수입해와서 진열해놓고 그 우수성을 열을 올리며 선전했지 기본적인 것은 만들 생각도 안하고 싸니까 외국에서 수입할 작정이었던 것 같다. 비단 이런 상황이 이 분야에서만 있을까?

오늘, IMF체제로 들어온지 7개월이 지나고 있다.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다. 쩡쩡거리던 기업이 부도로 무너진 수가 얼마인가? 공식 퇴출로 잇그제 무너져 내린 기업수가 55개, 그리고 앞으로 몇 개의 기업이 더 사라질까? 우리회사도 현재까지는 연명해 오고있지만 언제 날벼락을 맞을까? 부실 금융기관이 퇴출 내지 무너져 내린다. 모든 주식 값이 무너져내려 IMF전에 비하여 1/10이하로 내렸다. 거리에는 150만 명 이상의 실업자 물결, 내 몸 하나 운신하기 어려운 때라 그런지 도덕성도 무너져 내린다. 어디 반가운 소식은 없나하고 거의 매시간마다 뉴스를 들어보아도 또 아는 사람, 절친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보아도 반가운 소식은 찾아보기 힘들다. 골이 있으면 산이 있다는데 이제부터 시작이란다. 얼마나 더 무너져 내려야 하나? 앞으로 다가올 골은 얼마나 더 깊은가? 아무도 모른다 GOK(GOD ONLY KNOWS).

어떻게 하다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단기간 내의 눈부신 경제성장, 한강의 기적이 이처럼 무참히 무너져 내린단 말인가? 이렇게 되니까 TV에 나와서 이래서 그렇다, 저래서 그렇다 하는

체들을 하는 전문가가 많다. 왜 사전에 대책을 건의하여 미연에 방지를 못했을까? 묻고싶다.

대개의 줄거리는 정경유착으로 재벌들에게 천문학적인 자금이 집중적으로 지원되고 재벌은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가치창조에는 등한시하고 이 부채로 과잉중복투자로 몸 불리기에만 급급했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요즈음 빈번하게 BIG DEAL에 관한 이야기가 뉴스로 나오는데 이것이 아마 과잉중복투자에 대한 대책인 듯 싶는데 한심스럽게 생각되는 점은 왜 이러한 과잉중복투자를 누가 허락했는지, 허락할 때는 언제이고 왜 지금 와서 BIG DEAL을 운운하는 가이다.

정책당국자나 전문가들이 대책을 세울 시기를 놓친 것도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성수대교가 무너져 내리고, 삼풍백화점이 무너져 내릴 즈음 총체적인 부실 이라고 떠들어댔 즈음 무역적자의 기조가 무역적자의 기조로 돌아선 것으로 알고 있다. 다리나 건물 등과 같이 가시적인 것만 무너져 내린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부실로 우리의 경제도 뻘에 실구멍이 난 것처럼 물이 새나가기 시작했는데 이것을 간과하고 허리띠를 졸라매도 모자를 판에 OECD 가입이네, 몇 년 내 국민소득 면만 붙이네, 세계화네 하고 허풍치는 바람에 외국의 빛으로 과잉중복투자는 더욱더 가속화되었고 국민들의 생활은 사치로 치달아 외국으로부터 이자 주고 꾸어온 빛으로 호화사치관광, 보신관광, 양주소비 세계 일등국, 고급소비재, 골프채, 화장품, 실내장식, 장신구, 모피 등의 사재기에 물 쓰듯 써버렸다.

어떤 줄부귀부인은 해외관광 가서 기념품 SHOPPING할 때 100불 짜리 수십 장을 부채처럼 퍼들고 부채질을 하면서 싹쓸이 SHOPPING을 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그때 그 오만한 태도를 목격한 상점주인은 지금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어느새 6, 70년대 가치창조와 외화획득으로 뚝 살이 박혔던 우리의 손은 뽀얗고 예쁘나 나약한 손으로 바뀌었고 조금만 어렵고 힘든 일도 외면하여 그 많은 외국인 근로자를 들여다 우리가 외면하는 일을 시켰다. 얼마나 많은 외화가 달아났을까?

기회를 놓친 것은 금년 들어서도 있었다고 본다. 요즘 한참 거론되고 있는 각계각층의 구조조정이다. 구조조정은 빠를수록 좋다고 해놓고 또 국가적으로 가장선결문제였다면 지방선거 전에 해치워야 되지 않았을까 한다. 그때는 금모으기 운동 등 국민적인 정서도 무르익었고 웬만한 구조조정은 받아들였을 것이다.

지방선거기간중 우리는 무엇을 얻었는가? 속이 들여다보이는 당리당략, 밥그릇싸움 그리고 짜증스러운 인신공격... 이러한 사이에 결정적인 시기를 놓치고만 것 아닌가하고 걱정이 된다. 그렇다고 나는 시행착오가 없었나 돌이켜 보아야겠다.

서두에 이야기한 기본적인 문구(文具)가 한국에서 생산된 것이 없음을 개탄하면서도 나도 내가 34년간 일해온 전자공업분야에서 비슷한 시행착오와 전문분야에서의 기술적인 시행착오를 저질렀음을 부인할 수 없다. 가장 큰 시행착오는 경쟁력 있는 가치를 창조해야 할 기업이나 과학기술인이 자기의 전문분야를 너무 많이 바꾼 것이 아닌가싶다.

메모리반도체를 생산하면 돈을 번다 하면 너도 나도 우르르 메모리반도체생산에 과잉중복투자를 해왔고 나를 비롯한 많은 ENGINEER들도 이런 저런 이유로 분야를 바꾸었다. 천재가 아닌 이상 한 분야에 오랫동안 연구해야 남보다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정말 큰일이다. 어떤 전자제품을 개발하려할 때 기본적인 부품(대개 만들기 까다롭고 매출이

많이 일어나지 않는)들 즉 스위치, 잭, 콘넥터, 소형트랜스 등은 거의 모두 대만회사들의 독차지이고 국산이 있어도 가격이 비싸다. 옛날에는 국산이 흔했었는데 지금은 찾아보기 힘든 것이 많다. 조금 더 정교한 부품을 찾아보려면 백발백중 일본회사차지이다. 고주파용 반도체, 까다로운 부품류는 국내는 전무하고 거의 100% 미국회사의 신세를 저야 한다.

1960~70년대 COIL류를 생산하여 판매하던 일본회사들은 아직도 같은 종류의 부품을 30여년이 지난 지금도 영위하고 있으며 달라진 것은 제품이 팔목할만하게 다양해졌고 탐이 나도록 소형화하였다. 그때당시는 활발하게 거래하던 국내 업체가 지금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외국사 람들은 우리가 이리 우르르, 저리 우르르 할 때 한 우물을 파며 계속 연구하여 경쟁력 있는 제품 개발을 했던 것이다. 바로 이것이 경쟁력이 아닌가 싶다.

내가 찾던 간단하지만 기본적인 문구가 국산품이 없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생각해 보면 이해가 간다.

내가 전문분야를 바꾼 예를 나열해보면 64년 일반회사에 취직하여 전자공학도로서 진공관라디오의 설계로 시작하여 5·16군사혁명시절의 “잘살아 보세”의 기치 아래 보세가공이라든가 하여 외화획득을 해야한다 하여 일본으로부터 5석트랜지스터 라디오 KIT를 수입하여 조립하여 수출하는 회사에서의 생산기술요원, 외국투자회사에서 VHF/UHF TV TUNER생산, 60년대 말부터 70년대까지는 국내에서 TV, 냉장고등 가전제품을 만들어 팔면 사업이 잘되었으나 핵심부품은 일본으로부터 수입해야했는데 정부가 이 수입을 무한정 허가하는 것이 아니고 LINK불이라 하여 그 회사가 수출한 액수만큼 수입이 허용되어 그 당시 비교적 손쉬운 제품이 AUDIO제품이라 일

본과의 보세가공시 경험이 있다는 죄로 10여 년간 수백 가지 AUDIO 제품을 개발하여 생산하였다. 그후 회사를 다시 옮겨 공중통신망에 필요한 PCM CHANNEL BANK, T1 REGENERATIVE REPEATER, DIGITAL MULTIM, 광통신장치, 광케이블, UHF PCM 무선통신기기, DDS 기기 등을 접하게 되었다. 그리고 한 회사의 창업에 참여하여 분야로 따지면 DIGITAL TRANSMISSION SYSTEM 분야에 일하였고 그후 개인적으로 창업하여 통신기기용 부품을 생산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 번 전문분야를 자의건 타의건간에 바꾼 것에 대하여 반성하며 지금부터라도 내가 해온 분야에서 자신이 있는 분야를 선택하여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개발하려고 노력해야겠다.

두 번째 우리가 저지른 큰 시행착오중의 하나는 매사에 너무 조급함인 것 같다. 계획된 일정을 앞당겨 완료한 경부고속도로는 도로보수비용이 더 들었고 건국 이래 최대의 역사(役事)였던 주택 200만 호 건설은 구인란으로 급속한 인건비 상승을 유발시켰으며 대전 EXPO도 외국에서 막대한 비용으로 건본 수입하여 진열하느라 외화만 탕진했지 애초에 기대했던 것과는 거리가 먼 것 같으며 CATV, CELLULAR, PCS, 위성통신 등도 조급하게 서두르다보니 조금만 기다렸다 서비스를 했더라면 국내에서 해결할 수 있었던 제

품이나 부품을 미국에서 경쟁적으로 사들이려고 막대한 ROYALTY를 지불하였고 부품이나 제품을 도입하는데 바가지를 썼다.

경부고속전철을 보자. 이미 진행된 철도공사는 부실 덩어리에다 빈번한 설계변경, 철도는 완성도 되기도 전에 열차가 먼저 도입되어 낮잠을 자고 있다.

위성도 띄워 놓고 잘 활용을 못하고 있다. 너무 서두르다보니 결과는 백발백중 졸속에 부실 덩어리라 다리가 무너졌고 백화점이 무너져 내렸으며 경제가 무너져 내린 원인이 아닌가?

위와 같은 사실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과거사가 되어버렸고 내탓 내탓을 따질 때가 아니고 우리가 이와 같은 위기에 봉착하게 한 원인행위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에게든지 과소의 차이는 있지만 일부는 있다고 믿으며 각자가 과거에 저질렀던 시행착오를 되돌아보고 다시는 같은 시행착오를 저지르지 말아야 하며 허황된 생각을 버리고 또, 실현할 수도 없는 첨단으로만 치달을게 아니라 자기가 일하는 분야에서 다시 기본(基本)에 충실하면서 다만 몇 원 짜리 물건을 만들더라도 경쟁력이 있게 한다면 이것이 바로 첨단기술이고 이것이 다시 모여 국력이 되는 날 IMF도 졸업하게 된다고 본다.

(원고 접수일 1998. 7. 2)